

낙태경험 유무별로 본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Attitudes toward Abortion and Related Variables by Abortion Experience

인하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오 선 주

Dept. of Home Management Inha University

Associate Prof.: Sun joo Oh

〈목 차〉

I. 서 언	V. 결과 및 해석
II. 우리나라의 낙태논쟁	VI. 결론
III. 선행연구고찰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및 절차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abortion and such variables as age, education, religion, working, family income, son preference, and abortion experience. Questions are asked to see whether or not respondents think it should be possible to obtain legal abortion in nine circumstances. Logit analysis is executed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abortion attitudes and explanatory variables for all respondents and then for women with abortion experience and for those without.

Women with abortion experience are more likely to favor abortion than those without the experience. Catholics show tendency to oppose to legalized abortion compared to women with no religion. Women who show higher son preference are more likely to oppose to abortion in case of pregnancy by rape. Women who are working tend to show favorable attitudes toward abortion in case of women who want no more child. Women who have low income and abortion experience have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abortion. Old women are more likely to favor abortion than young women. The more educated women show the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abortion

*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1994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서 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다산형태가 소산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국가는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녀수 조절의 방법으로 낙태를 묵인하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소자녀관이 정착되면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생명에 대한 큰 고려없이 낙태를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간단한 수술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소자녀관이 남아선호사상과 결합되어 성비감별에 의한 여태아의 낙태도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심한 성비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낙태의 성행은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 크기와 모습, 유형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의미하므로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의 모습을 예측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와 관련시켜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태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몇 편 안되는 연구들도 낙태에 대한 태도를 한 두 문항의 질문으로 측정하고 있어 낙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9개의 상황에 대해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어떠한 상황에 대해 허용적인지, 또는 허용적이지 않은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낙태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변수들이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종교를 비롯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외에 낙태태도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의 직업유무, 남아선호도, 낙태경험유무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이분로지트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우리나라의 낙태논쟁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

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낙태에 대한 사회에서의 심각한 논쟁없이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자녀수조절을 위해 낙태가 묵인되어 왔으며 낙태건수가 1년에 150만(인구 4천 1백만)에 이르고 있고 실체는 200만이라고 추산되고 있다(김현철, 1990, 한춘기, 1994에서 재인용).

이는 년당 160만건인 미국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치이며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6배가 되는 것을 고려할때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최근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하였고 여론론자, 법조계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그들의 입장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계의 입장

낙태논쟁에서 중요한 논점은 태아를 어느때부터 '인간'으로 인정하는가이다.

이 논점에 대한 여섯가지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Barody, 1975, 한중식, 1993에서 재인용).

첫째, 임신된 순간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둘째,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시기가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라는 입장이다.

셋째, 태아의 두뇌가 활동하는 6주말 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입장이다.

네째, 태아의 운동을 임신부가 감지할 수 있을때를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섯째, 태아가 태어나서 모태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태아가 인간이 되는 시기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여섯째, 출생하는 순간이 태아가 비로소 인간이 되는 시기라는 입장이다.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여섯가지 입장중 첫번째 입장으로서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

이라고 보며 임신의 어떤 단계에서도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한중식, 1993).

한춘기(1994) 또한 낙태에 관한 세가지 견해(가이슬러, 1992, 한춘기, 1994에서 재인용)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태아의 지위	완전한 사람	잠재적인 사람	불완전한 사람
낙태	결코해서는 안된다	때에 따라 해도 된다	언제나 해도된다
근거	생명의 신성	생명의 출현	생명의 질
모권	사생활보다 생명이 우위	권리들의 결합	생명보다 사생활권의 우위

기독교의 입장은 위의 표의 3가지 견해중 태아는 수정될때부터 완전한 사람이므로 낙태를 결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경우 천주교가 낙태반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천주교가 낙태를 부분허용하는 형법개정안에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독교도 낙태반대운동연합 등의 활동을 통하여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리스도와 의료 편집부, 1995).

불교에서도 수태되는 순간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백경임, 1985, 백경임, 1986에서 재인용). 태아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행위로 간주된다. 즉,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가치관을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불교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백경임, 1986).

2. 여권론자의 입장

낙태논쟁에서 여성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즉 임신은 여성의 몸속에서, 또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아이가 태어난후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양육하는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

회체제내에서 여성들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자신의 몸에 대해 여성자신이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폭행이나 성을 통한 여성통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원하지 않은 임신의 가능성이 여성에게 존재하는 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억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를 비롯한 재생산의 자유를 획득하여 여성 스스로가 출산을 통제할 수 있을때 여성이 갖는 생물학적 기능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는 사회제도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은실, 1991).

서정신(1994)은 그들이 주장하는 낙태권리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그 가치와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다른 가치들, 즉 여성의 생명, 건강, 자율성, 존엄성 등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여성의 생명이 임신에 의해 위협하게 된 경우나,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되었을 경우 종교적 교리와 관계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법조계의 입장

김영환(1991)은 우리나라의 낙태논쟁이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고 있으나 단순한 양자택일식으로 집약되어 귀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규범적 입장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비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하는가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적인 입장에서 현실의 낙태관행과 낙태죄의 사문화를 들어 낙태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단의 주장보다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낙태와 금지되어야 할 낙태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허용되는 낙태는 임신중절이란 말로 표현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현행모자보건법에서는 의학적, 윤리적, 우생학적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법이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배종대(1993)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이 걸으로는 낙태를 금지하며 일부 정당화 사유가 있을때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낙태를 완전히 자유화하고 있는 현실이며 낙태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당화 사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사와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않고 그 사유의 확인이 시술의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의사의 경제적 관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하에 낙태가 시술될 수 있고 정당화 사유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유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는 모체의 생명이 위협한 경우(의학적 정당화 사유)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윤리적 정당화 사유)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화 사유가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사유를 판단하는 의사와 시술의사를 분리시키고 위반의사의 처벌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4. 일반대중의 낙태에 대한 인식

일반인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과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다산형태가 소산, 소자녀관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변화에 소요된 기간은 불과 1/4세기밖에 되지 않는다. 즉 부부당 평균 6명의 자녀가 2명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가족계획 사업의 영향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7). 1962년 이후 시작된 경제개발과 그에 따른 변화, 즉 교육수준의 향상, 산업화로 인한 가족가치관의 변화 즉 핵가족화의 현상도 소자녀관으로 변화하게한 주요원인이라 볼 수 있다(변화순, 1991).

이와같은 자녀출산수의 저하는 피임 등 가족계획 사업에 의한 것도 있으나 낙태도 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종귀, 송태민, 1984). 또한, 소자녀관이 남아선호사상과 결합하여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남아출산으로 출산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김일현, 1990). 즉, 성별감별에 의해 여아를 낙

태하는 등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여자태아의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서정신, 1994). 조순희(1981)의 연구에 따르면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 중 자녀수조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만약 원치않는 임신이 되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II. 선행연구고찰

외국의 낙태에 대한 태도 연구와 우리나라의 연구를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수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종교별 낙태에 대한 태도

낙태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논문들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변수가 종교이다.

Ebaugh와 Hancy(1980)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유대교가 가장 진보적 태도를 보였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유대교와 달리 낙태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약간 더 보수적이다. 또한 교회예배에 정기적으로 더 자주 참석하는 사람이 더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Osborn과 Silkey(1980)는 캐나다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천주교인의 낙태에 대한 태도가 비천주교인에 비해 더 보수적임을 밝혔다.

Baker외(1981)도 그들의 연구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교하였을때 개신교가 낙태에 대해 더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보다는 종교성의 강도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종교성이 강하다고 보고한 사람이 약하다고 보고한 사람보다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Breslau(1987)의 연구에서도 천주교와 비천주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천주교인이 낙태에 덜 찬성

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순희(1981)는 종교별로 낙태의 찬성율을 비교하여 천주교가 찬성율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불교, 무교, 기독교의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조순희의 연구와는 달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연구에 따르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낙태허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불교와 무종교집단은 낙태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천주교와 기독교 신앙이 낙태를 덜 허용하는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더 허용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 여성의 사회참여와 낙태에 대한 태도

Jones와 Westoff(1972)는 직업을 갖지 않은 여성과 직업이 있는 여성을 비교하여 직업이 없는 여성이 직업이 있는 여성에 비해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인 경우와 다른 이유로 일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일하는 여성이 낙태에 대해 가장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권론자들의 낙태에 대한 입장은 여성이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낙태를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여성의 직업유무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낙태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이 변수가 많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외로 여성의 직업유무와 낙태에 대한 태도를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직업유무가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3. 남아선호사상

남아선호사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왔다(이효재, 1973).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성비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아선호사상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홍탁, 1987). 김일현(1990)도 우리나라에서 태아성감별을 통한 낙태에 의해 출산성비가 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태아에 대해 낙태를 해서라도 원하는 아들을 얻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은 낙태에 대한 태도와도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이 자신이 표명하는 태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이효재, 1973), 남아선호도와 낙태가 관련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낙태와 관련된 변수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과 낙태에 대한 태도를 관련시켜서 본 연구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이 중요하다고 지적은 되어왔으나 실제로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시켜 본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아선호사상도 포함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4. 개인적인 생활경험과 낙태에 대한 태도

Breslau(1987)는 개인의 생활경험이 낙태에 대한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만한 부류의 사람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였다. 그는 장애아를 가진 가족이 일반통념과는 달리 상당히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장애아동의 부모는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해 덜 허용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장애아동의 어머니와 장애가 없는 아동의 어머니 두 집단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두 집단은 기형아 출산의 염려가 있을 때의 낙태에 대해서도 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이유에 의한

낙태에 있어서도 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Holzauer(198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에서 재인용)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연구에서도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이 낙태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낙태에 대한 태도가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경(1993)은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조사하여 낙태전에는 낙태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에서 자신의 낙태경험후에는 허용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때, 낙태경험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분석에 포함시켰다.

5.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낙태에 대한 태도

연령별 낙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의 연구들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보다 낙태에 더 반대한다고 보고하였다(Blake, 1971; Ryder and Westoff, 1971, Ebaugh and Haney, 1980에서 재인용). 이는 나이든 여성이 젊은 여성보다 출산통제의 압력을 더 받는 시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Ebaugh와 Haney(1980)의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보다 낙태에 대해 좀 더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Evers와 McGee(1980)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대한 허용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Baker외(1981)도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보다 낙태에 대해 더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Breslau(198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낙태에 대한 태도와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순희(1981)의 연구에서 연령이 50세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허용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30대, 40대의 여성들은 낙태허

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1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낙태허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로 볼때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가입연령기의 여성들의 낙태허용도가 다른 연령층의 여성들의 낙태허용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볼때 연령별 낙태에 대한 태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분석에 포함시켜 연령이 낙태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수준별 낙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아진다(Ebaugh와 Haney, 1980).

Osborn과 Silkey(1980)는 캐나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경향임을 밝혔다.

Evers와 McGee(1980)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학자들은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 진보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한다(Evers and McGee, 1980).

Baker외(1981)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또한 blue collar에 비해 white collar직이 낙태에 대해 허용적임을 보고하였다.

Breslau(1987)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사람보다 낙태에 덜 찬성하는 경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연구로 조순희(1981)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연구에서는 학력별로 낙태 허용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가 다른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허용적 경향을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반대 경향이거나 무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분석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와 교육수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다.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질문지를 배포하고 학생의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 경우 주변의 다른 여성에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생활수준이 고르게 분포되게 하기 위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2개교씩 설정하되 각각 1개교는 인천시의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1개교는 비교적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임의로 설정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86명의 여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낙태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러 설명변수들을 이분로지트 분석에 포함시켰다.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낙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항목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항목들을 대체로 "hard reason"과 "soft reason"으로 분류하고 있다 (Evers and McGee, 1980; Cutler외, 1980; Breslau, 1987 등).

Breslau(1987)는 "hard reason" 즉, 임신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경우,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강간으로 임신된 경우를 "어쩔수 없는 사유"라고 표현하고, "soft reason" 즉,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수 없는 경우, 미혼여성이 상대남자와 결혼할수 없는 경우, 기혼여성이 더 이상의 아이를 원치 않을 경우를 "선택적 사유"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쩔수 없는 사유" 3문항, "선택적 사유" 3문항외에 예비조사를 통해 선택적 사유를 3문항 더 첨가하여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첨가된 3문항은 임신중이나 이혼을 고려중인 경우, 태아가 아들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직장생활로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이다.

낙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9가지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 하였는데 이 9가지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임신으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경우
- ②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③ 여성이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
- ④ 가정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아이를 더 낳아 키우기 어려운 경우
- ⑤ 미혼여성이고 상대 남자와 결혼할 수 없을때
- ⑥ 기혼여성이나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 ⑦ 임신이 되었으나 부부사이가 좋지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
- ⑧ 아들을 원하는데 태아가 아들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 ⑨ 여성이 직장생활 때문에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①-⑨번까지의 각각의 질문에 대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0으로 하여, 각각의 질문에 대해 이분로지트분석을 시행하였다.

낙태에 대한 태도와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로지트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연령: 연령자체보다는 연령집단별 차이가 예상되므로 35세 이하, 36-45세, 46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가변수화 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교육수준: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가변수화 하였다.

종교: 무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가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직업유무: 직업의 종류보다는 현재의 직업활동 여부가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직업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가족수입: 상·중·하로 분류하여 가변수화 하였다.

남아선호도: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이 성별감별에 따른 여아낙태를 가져온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남아선호도는 낙태에 대한 태도, 특히 태아성별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낙태경험유무: 개인의 낙태에 대한 경험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이숙경, 1993) 연구결과에 따라 낙태경험유무가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분석에 포함시켰다.

낙태경험유무에 따라 두집단이 다른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집단에 대해 이분로지트 분석을 실시한 후에 낙태경험이 있는 집단, 없는 집단의 두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 대해 이분로지트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낙태경험유무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표 1〉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6-45세가 75%로 3/4정도를 차지하고 35세이하가 14%정도, 46세 이상이 1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낙태경험 유무별로 보면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은 연령층(46세 이상)의 비율이 약간 높다.

교육수준은 중졸이 44%, 고졸이 38%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국졸이하가 11%, 대졸이상이 8% 정도로 소수이다. 낙태경험 유무별로 보면 역시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국졸이하의 학력에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인다.

가족수입은 중이 가장 많고 하·상의 순이다.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중층의 비율이 높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32%, 개신교가 29%, 천주교 13%, 불교가 26%로 분포되어 있다. 낙태경험의 유무별로 살펴보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 낙태경험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전 체
연령			
35세 이하	12.2%	15.2%	13.7%
36-45세	75.0%	75.8%	75.4%
46세 이상	12.8%	9.1%	10.9%
	(N=288*)	(N=297)	(N=585)
교육			
국졸이하	14.3%	7.4%	10.8%
중졸·중졸	40.8%	46.1%	43.5%
고졸·고졸	37.3%	38.7%	38.0%
대졸·대졸·대학원이상	7.7%	7.7%	7.7%
	(N=287)	(N=297)	(N=584)
가족 수입			
하	34.8%	32.1%	33.4%
중	41.1%	47.3%	44.3%
상	24.0%	20.6%	22.3%
	(N=287)	(N=296)	(N=583)
종교			
없음	33.6%	31.3%	32.4%
기독교(개신교)	30.0%	28.6%	29.3%
천주교	12.0%	13.6%	12.8%
불교	24.4%	26.5%	25.5%
	(N=283)	(N=294)	(N=577)

a.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으므로 각 변수별로 사례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연령층이 약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국졸이하의 학력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며,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중층의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경험 유무에 따른 종교의 분포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낙태 경험유무와 낙태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가지의 사유들에 대하여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것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여성의 건강, 기형아, 강간의 사유는 “어쩔 수 없는 사유”라 불리우고, 기혼여성이 원치 않을 때, 경제 형편상, 미혼여성일 때가 “선택적 사유”라 불리우는데, 외국의 연구(Evers와 McGee, 1980)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 72%,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선택적 사유”는 58%, 37%, 36%로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추가한 “선택적 사유”는 35%, 10%, 7%로 제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추가한 3개의 항목 중 ‘이혼고려중’은 35%로 2번째 그룹의 “선택적 사유”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나 ‘직장생활’과 ‘태아가 딸’사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이하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허용할 수 없는 사유”라고 명명하였다.

〈표 2〉 낙태 허용 백분율

순위	사유	전체 (N=572)	낙태경험 無 (N=279)	낙태경험 有 (N=293)	Chi-square
1	강 간	72.2%	67.4%	76.8%	5.8429*
2	모의 건강	70.6%	65.6%	75.4%	6.1985*
3	기형아	68.9%	63.4%	74.1%	7.0332*
4	미혼 여성	57.9%	50.9%	64.5%	10.3052*
5	원치 않음	37.1%	26.9%	46.8%	23.3593***
6	경제 사정	35.8%	29.7%	41.6%	8.2757*
7	이혼고려중	34.8%	27.6%	41.6%	11.8059***
8	직장생활	10.0%	7.9%	11.9%	2.1927*
9	태아가 딸	6.6%	4.3%	8.9%	4.1091*

b. 허용 비율이 높은 순으로 배열함

Evers와 McGee의 연구에서 나타난 순위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순위의 다른 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내에서의 3개의 항목의 순위가 바뀌었으며 “선택적 사유”내의 3개 항목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의 연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유”내에서 ‘모의 건강’, ‘기형아’, ‘강간’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간’, ‘모의 건강’, ‘기형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이 외국에서는 3위이나 본 연구에서는 1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

적 특성상 강간에 의한 임신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 용납치 않기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선택적 사유”내에서 ‘경제사정’, ‘미혼여성’, ‘원치 않음’,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 ‘원치않음’, ‘경제사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경제사정’이 4위이나 본 연구에서는 6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제 먹을 복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듯이(신동운, 1991, 이인숙, 1993에서 재인용) 경제사정에 의한 낙태는 외국에 비해 덜 허용적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고 허용백분율을 보인 ‘모의 건강’사유에 대해 1973년에 이미 허용율이 90%를 넘었으나(Evers와 McGee, 1980), 우리나라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약 20년후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모의 건강’사유에 대한 허용율이 70%를 약간 웃도는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의 낙태건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낙태건수가 우리나라의 인구의 6배인 미국의 낙태건수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한춘기, 1994). 즉 인구비례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6배의 낙태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미국에 비해 허용도가 낮으나 실제행동에 있어서는 훨씬 낙태를 더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낙태경험의 유무별로 허용비율을 비교해보면 최고 비율을 보인 3개의 사유는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과 경험이 없는 여성이 허용비율에서 약 10% 내외의 차이를 보이며 최하위의 2가지 사유는 약 4%내외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중간순위 4개의 항목은 약 12-2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상위 3개항목(“어쩔수 없는 사유”)은 낙태경험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없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며, 최하위 2개항목(“허용할 수 없는 사유”)은 낙태경험 유무에 따라 별 차이없이 이런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간의 4개 항목("선택적 사유")은 낙태경험의 유무에 따라 태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낙태경험을 한 후에는 이 항목들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님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3.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 분석

9가지 사유에 대하여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이분로지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임신으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경우(표 3-1)

로지트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 중 낙태경험유무만이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게 나타났다. 즉,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나누어 이분로지트분석을 하였을때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중 낙태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분석에 포함된 변수중 카톨릭만이 낙태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카톨릭 여성들이 종교가 없는 여성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표 3-2)

이 경우에도 로지트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낙태경험유무만이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나누어 로지트 분석을 했을때 매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 36-45세 연령층의 여성들이 35세이하의 여성보다 이 경우의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36-45세 연령층의 여성이 35세이하의 여성보다 이 경우의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국졸이하의 교육수준의 여성들이 중졸의 여성들보다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외에도 종교가 없는 여성들에 비해 카톨릭의 경우와 불교의 경우가 이러한 상황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③ 여성이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표 3-3)

이 경우에도 분석에 포함된 변수중 낙태경험 유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나누어 로지트 분석을 한 결과 다른 변수들이 낙태에 대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낙태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46세 이상의 여성들이 35세이하의 여성보다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족수입이 '중'정도인 경우가 '하'인 경우에 비해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이 높을수록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낙태의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수준이 중졸에 비해 국졸이하와 고졸인 경우 이러한 상황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가 없는 여성에 비해 카톨릭 여성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남아선호사상이 높을수록 허용적이지 않다.

④ 가정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아이를 더 낳아 키우기 어려운 경우(표 3-4)

이 경우의 로지트분석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낙태경험 유무뿐이다.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와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로지트분석을 했을때는 다른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국졸이하의 여성들이 중졸여성에 비해 이러한 상황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표 3-1〉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모의 건강)

‘모의 건강’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2112	1.5766	.2420	1.2334	.1922	1.0224
	=1(46세이상)	.2837	1.4745	.2935	1.1287	.2576	.8357
교육 수준	=1(국졸이하)	.0164	.1008	.1993	.9566	-.3684	-1.4391
	=1(고졸)	.0962	.8854	.1602	1.0771	.0035	.0217
	=1(대졸이상)	.0170	.0885	.0060	.0231	.0243	.0814
종교	=1(개신교)	.1228	-.9780	-.1868	-1.1347	.0515	.2631
	=1(천주교)	.2134	-1.3577	.0199	.0876	-.4100	-1.8700 ^d
	=1(불교)	.0968	.7512	.0087	.0495	-.1760	-.9251
직업유무	=1(직업있음)	.0168	.1743	.1390	1.0445	-.1262	-.8788
가족 수입	=1(중)	.1497	1.3380	.1902	1.2368	.0940	.5712
	=1(상)	.1454	1.0671	.0699	.3919	.2191	1.0036
남아선호도		.0344	-.4551	-.0763	-.7438	.0284	.2416
낙태경험 유무		=1(경험있음)	.2555	2.6436 ^{***}	-	-	-

유의한 변수 없음

- c. 연령(가변수조작후 제외된 범주: 35세이하), 교육수준(가변수조작후 제외된 범주: 중졸), 종교(가변수조작후 제외된 범주: 무종교), 직업유무(직업없음: 0), 가족수입(가변수조작후 제외된 범주: 하), 낙태경험 유무(경험없음: 0)
 - d. *유의수준 0.10에서 critical value: 1.645, **유의수준 0.05에서 critical value: 1.960, ***유의수준 0.01에서 critical value: 2.576
- 이 주는 이후의 모든 표에 해당됨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중졸여성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카톨릭 여성들이 종교가 없는 여성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⑤ 미혼 여성이고 상대 남자와 결혼할 수 없을때 (표 3-5)

이 경우의 이분로지트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에 포함된 변수중 낙태경험 유무 외에도 종교가 카톨릭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낙태경험이 있을수록 이 경우의 낙태에 허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카톨릭인 경우 무종교에 비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낙태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대한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 중졸에 비해 허용적

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졸이상의 경우 중졸에 비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종교가 불교인 여성들은 무종교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이 국졸이하의 여성이 중졸여성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카톨릭 여성은 무종교에 비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가족수입이 ‘상’인 경우 ‘하’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⑥ 기혼 여성이나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표 3-6)

이 경우에 대한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낙태경험 유무, 카톨릭외에도, 교육수준 대졸이상, 연령이

〈표 3-2〉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기형아)

‘기형아’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2112	1.5766	.4012	2.0558**	.3574	1.9207
	=1(46세이상)	.2837	1.4745	.3889	1.5159	.4466	1.4509
교육수준	=1(국졸이하)	.0164	.1008	.0674	.3334	-.6284	-2.3909**
	=1(고졸)	.0962	.8854	.1505	1.0085	-.1451	-.8943
	=1(대졸이상)	.0170	.0885	-.1262	-.4983	.0420	.1423
종교	=1(개신교)	.1228	-.9780	-.0574	-.3492	-.0936	-.4592
	=1(천주교)	.2134	-1.3577	-.0912	-.4194	-.8111	-3.6004***
	=1(불교)	.0968	.7512	.1225	.6930	-.3607	-1.8327*
직업유무	=1(직업있음)	.0168	.1743	-.1091	-.8313	-.0035	-.0238
가족수입	=1(중)	.1497	1.3380	.2262	1.4829	-.2284	-1.3018
	=1(상)	.1454	1.0671	.1457	.8197	-.2075	-.9554
남아선호도		.0344	-.4551	.1207	1.1847	-.1575	-1.3163
낙태경험 유무 =1(경험있음)		.2555	2.6436***	-	-	-	-

〈표 3-3〉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강간)

‘강간’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2112	1.5766	.0968	.4850	.1479	.7342
	=1(46세이상)	.2837	1.4745	.5916	1.9944**	.0320	.1048
교육수준	=1(국졸이하)	.0164	.1008	.3216	1.4467	-.5101	-1.7840*
	=1(고졸)	.0962	.8854	.1126	.7392	-.3427	-2.0086**
	=1(대졸이상)	.0170	.0885	-.1478	-.5704	-.2466	-.8416
종교	=1(개신교)	.1228	-.9780	-.2118	-1.2568	-.2350	-1.1125
	=1(천주교)	.2134	-1.3577	-.0344	-.1478	-.8329	-3.5403***
	=1(불교)	.0968	.7512	.0002	.0011	-.3077	-1.4706
직업유무	=1(직업있음)	.0168	.1743	.0544	.3994	.0380	.2527
가족수입	=1(중)	.1497	1.3380	.3262	2.0438**	.0903	.4981
	=1(상)	.1454	1.0671	.0903	.5013	-.1280	-.5923
남아선호도		.0344	-.4551	-.1886	-1.7702*	-.2531	-1.9947**
낙태경험 유무 =1(경험있음)		.2555	2.6436***	-	-	-	-

36-45세인 집단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 이 없는 경우에 비해

〈표 3-4〉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경제사정)

‘경제사정’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2112	1.5766	-.1099	-.5304	-.1168	-.6729
	=1(46세이상)	.2837	1.4745	-.3075	-1.0933	-.0709	-.2731
교육 수준	=1(국졸이하)	.0164	.1008	-.4061	-1.6946*	-.2382	-.9348
	=1(고졸)	.0962	.8854	.0631	.4214	-.0007	-.0052
	=1(대졸이상)	.0170	.0885	-.3101	-1.0065	.6009	2.2750**
종교	=1(개신교)	.1228	-.9780	-.2662	-1.5060	-.0937	-.5849
	=1(천주교)	.2134	-1.3577	-.2548	-1.0608	-.6019	-2.6529***
	=1(불교)	.0968	.7512	.0435	.2499	-.1308	-.7981
직업유무	=1(직업있음)	.0168	.1743	-.0344	-.2489	.1588	1.2692
가족 수입	=1(중)	.1497	1.3380	.0009	.0056	-.0053	-.0360
	=1(상)	.1454	1.0671	-.1140	-.5981	.0707	.3840
남아선호도		.0344	-.4551	-.0997	-.9388	.0395	.3864
낙태경험유무 =1(경험있음)		.2555	2.6436***	-	-	-	-

〈표 3-5〉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미혼여성)

‘미혼여성’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1942	1.5072	.2446	1.2214	.0784	.4381
	=1(46세이상)	.1962	1.0927	.1977	.7679	.1814	.6433
교육 수준	=1(국졸이하)	-.0383	-.2473	.2523	1.2778	-.5995	-2.3783**
	=1(고졸)	.0381	.3783	.3084	2.1489**	-.2265	-1.5597
	=1(대졸이상)	-.2614	-1.4662	-.5465	-1.9175*	.0122	.0463
종교	=1(개신교)	-.0642	-.5551	.0702	.4375	-.1153	-.6611
	=1(천주교)	-.3554	-2.4201**	-.0755	-.3526	-.6409	-3.0613***
	=1(불교)	.0280	.2345	.3476	2.0359**	-.2514	-1.4300
직업유무	=1(직업있음)	.0087	.0964	.0580	.4486	-.0020	-.0152
가족 수입	=1(중)	.1022	.9688	.1911	1.2785	-.0240	-.1531
	=1(상)	-.0468	-.3717	.1574	.8960	-.3269	-1.7155*
남아선호도		-.0151	-.2147	-.0325	-.3303	-.0347	.3255
낙태경험유무 =1(경험있음)		.2869	3.2028***	-	-	-	-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카톨릭의 경우 무종교에 비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36-45세 연령집단은 35세 이하의 집단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의 경우 중졸집단에 비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낙태경험이 없는 여성에 대한 이분로지트분석에서

〈표 3-6〉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원치않음)

‘원치않음’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2859	2.0383**	.0253	.1169	.4339	2.3745**	
=1(46세이상)	.0566	.2872	-.1264	-.4283	.1872	.7006	
교육 수준 =1(국졸이하)	.0946	.5769	.1046	.4622	.0827	.3272	
	=1(고졸)	.1279	1.2235	.3189	1.9737**	.0258	.1868
	=1(대졸이상)	.3245	1.7448*	.3166	1.1072	.3378	1.3249
종교 =1(개신교)	-.1616	-1.3552	.0743	.4229	-.3267	-2.0050**	
	=1(천주교)	-.5754	-3.3755***	-.5446	-1.8183*	-.6063	-2.8267***
	=1(불교)	-.0358	-.2977	.0594	.3241	-.0821	-.4985
직업유무 =1(직업있음)	.1280	1.3724	-.0270	-.1885	.2369	1.8980*	
가족 수입 =1(중)	.0401	.3652	.0552	.3327	.0009	.0061	
	=1(상)	.0377	-.2832	-.0359	-.1815	-.0368	-.1987
남아선호도	.1065	1.4527	.1692	1.5247	.0610	.5963	
낙태경험유무 =1(경험있음)	.4661	4.9418***	-	-	-	-	

는 고졸여성의 경우 중졸 여성에 비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카톨릭의 경우 무종교에 비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카톨릭여성외에 개신교 여성들도 무종교 집단에 비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36-45세 여성들이 35세 이하의 여성들에 비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직업이 있는 여성이 직업이 없는 여성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⑦ 임신이 되었으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표 3-7)

이 경우의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낙태경험 유무와 카톨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낙태경험이 없는 여성에 대한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게 나타났다.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카톨릭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카톨릭 여성이 무종교 여성에 비해 허용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⑧ 아들을 원하는데 태아가 아들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표 3-8)

이 경우의 이분로지트분석에서도 낙태경험 유무와 카톨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아선호사상이 성별 감별에 따른 여아의 낙태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정신, 1994)가 있으나, 이 로지트분석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낙태경험 유무에 따라 분류하여 이분로지트분석을 각각 시행하였을때,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게 나타났다.

⑨ 여성이 직장생활때문에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표 3-9)

이 경우의 로지트분석에 있어서는 낙태경험 유무 외에 불교와 가족 수입 ‘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교가 무종교에 비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으며 수입이 ‘중’인 경우 수입이 ‘하’인 경우에 비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낙태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이분로지트분석에서는

〈표 3-7〉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이혼고려중)

‘이혼고려중’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1127	.8311	.2989	1.2328	-.0650	-.3722
	=1(46세이상)	.0892	.4770	.0478	.1522	.1086	.4190
교육수준	=1(국졸이하)	-.1264	-.7681	.0536	.2473	-.3708	-1.4437
	=1(고졸)	-.0803	-.7834	.0427	.2744	-.1957	-1.4137
	=1(대졸이상)	.0274	.1482	-.2112	-.6803	.2494	.9634
종교	=1(개신교)	-.0804	-.6860	-.2209	-1.2310	.0688	.4303
	=1(천주교)	-.3567	-2.2249**	-.0190	-.0848	-.6296	-2.7094***
	=1(불교)	-.1060	-.8818	-.1672	-.9105	-.0292	-.1783
직업유무	=1(직업있음)	-.0594	-.6437	-.1516	-1.0709	.0166	.1319
가족수입	=1(중)	.0435	.4053	.0515	.3148	-.0095	-.0651
	=1(상)	-.1032	-.7773	.0330	.1716	-.2854	-1.5051
남아선호도		.0020	.0279	-.0290	-.2688	-.0074	-.0719
낙태경험 유무		=1(경험있음)	.3086	3.3444***	-	-	-

유의한 변수 없음

〈표 3-8〉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태아가 딸)

‘태아가 딸’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0639	.2481	-.0114	-.0265	.1969	.5971
	=1(46세이상)	.1402	.4149	-.3660	-.5571	.4844	1.1563
교육수준	=1(국졸이하)	-.1152	-.3478	-.1630	-.3664	-.2933	-.5390
	=1(고졸)	-.0093	-.0468	-.7798	-1.4049	.1737	.7626
	=1(대졸이상)	.2639	.7477	.6322	1.2229	-.1059	-.1880
종교	=1(개신교)	-.2105	-.8801	.1597	.3587	-.3526	-1.1928
	=1(천주교)	-.8864	-1.6706*	-9.4372	-.0024	-.7654	-1.4138
	=1(불교)	.1489	.7215	.5610	1.3830	.0315	.1257
직업유무	=1(직업있음)	.0299	.1706	.3132	.9299	-.1077	-.5017
가족수입	=1(중)	-.1761	-.8871	-.5055	-1.2894	-.0810	-.3366
	=1(상)	.3340	1.2578	-.5974	-1.1836	-.2589	-.7915
남아선호도		.1557	1.0862	.2994	1.1224	.1183	.6571
낙태경험 유무		=1(경험있음)	.4247	2.2362**	-	-	-

유의한 변수 없음

유의한 변수 없음

수입이 ‘중’인 경우가 수입이 ‘하’인 경우에 비해 이러한 상황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표 3-9〉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분석(직장생활)

‘직장생활’사유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
(허용되어야 한다: 1,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0)

설명변수		전 체		낙태경험 無		낙태경험 有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연령	=1(36-45세)	.1151	.5243	.2775	.7057	.0427	.1570
	=1(46세이상)	.0214	.0710	.0412	.0782	.1328	.3477
교육 수준	=1(국졸이하)	-.1773	-.6793	.1194	.3628	-.6684	-1.2505
	=1(고졸)	-.1767	-1.0667	-.1440	-.5146	-.2054	-.9905
	=1(대졸이상)	-.1799	-.5438	.1757	.4027	-.5396	-.9897
종교	=1(개신교)	-.0197	-.1011	.2076	.6893	-.1229	-.4617
	=1(천주교)	-.4144	-1.2638	-.3687	-.6553	-.4183	-1.0285
	=1(불교)	.3097	1.7296*	.3335	1.1116	.3233	1.3985
직업유무	=1(직업있음)	.2219	1.5093	.2213	.9297	.2374	1.2433
가족 수입	=1(중)	-.3343	-2.0032**	-.1358	-.5104	-.4269	-1.9589*
	=1(상)	-.3092	-1.4905	-.2640	-.7872	-.2921	-1.0858
남아선호도		-.0389	-.3433	-.0081	-.0450	-.0861	-.5606
낙태경험 유무 =1(경험있음)		.2576	1.7136*	-	-	-	-

유의한 변수 없음

위의 이분로지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해 이분로지트분석을 했을때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낙태경험 유무만이 모든 경우의 낙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모든 경우의 낙태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낙태경험이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져온다는 연구(이숙경, 1993)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합리화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카톨릭인 경우를 살펴보면 미혼여성의 경우,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태아가 딸인 경우(5.8번의 경우)의 낙태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카톨릭 여성들은 무종교 여성에 비해 위에 열거한 사유에 의한 낙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즉, “어쩔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카톨릭이 무종교와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선택적 사유”에 대해서는 카톨릭이 무종교에 비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의 낙태에 대해서는 무종교나 카톨릭이나 별 차이없이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택적 사유”에 대해서는 카톨릭의 교리가 신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직장생활 때문에인 경우(9번)에는 카톨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카톨릭이나 무종교인 경우나 직장생활을 이유로 하는 낙태에 대해서는 다같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경우의 낙태와는 달리 직장생활하는 경우의 낙태에 있어서 불교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계의 방향이 정방향이다. 즉, 불교집단이 무종교집단에 비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 불교를 믿는 사람의 어떠한 특성이 직장생활로 인한 낙태에 허용적 태도를 가져오는지는 추측하기 어렵다. 또한 수입이 ‘중’인 경우 수입이 ‘하’인 경우에 비해 직장생활을 이유로 하는 낙태에 대해 더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즉,

〈표 4〉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분로지트 분석(종합)

변수	사유 ^e	전 체									낙태 경험 무									낙태 경험 유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연령	36-45세					+						+										+			+				
	46세이상												+																
교육 수준	국졸이하														-							-	-	-					
	고졸														+	+								-					
종교	대졸이상					+									-								+						
	개신교																									-			
종교	천주교				-	-	-	-								-					-	-	-	-	-	-			
	불교								+						+							-							
직업유무																									+				
가족 수입	중								-			+																-	
	상																												
남아선호도															-									-					
낙태경험유무		+	+	+	+	+	+	+	+	+																			

e. 사유 1. 모의 건강, 2. 기형아, 3. 강간, 4. 경제사정, 5. 미혼 여성, 6. 원치 않음, 7. 이혼 고려중, 8. 태아가 딸, 9. 직장생활

바꾸어 말하면 수입이 '하'인 여성이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더 허용적이라 볼 수 있는데 가정경제형편상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하'층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다른 경우의 낙태와는 달리 기혼여성이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을 때인 경우(6번)의 낙태에 대해 중간 연령집단과 교육수준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6-45세의 여성이 35세 이하의 여성보다 허용적이며 대졸이상의 여성이 중졸여성에 비해 허용적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여성이 젊은 여성보다 가정생활을 더 오래 지속해본 결과 자신이 원하지 않을때는 아이를 낙태를 하더라도 갖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원치 않는 아이인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태도의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닌가 추측할 수 있겠다.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한 이분로지트분석에서 모든 경우의 낙태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났던 '낙태경험유

무'에 따라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과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을 나누어 이분로지트분석을 한 결과 두 집단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혼여성의 경우, 더 이상의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태아가 딸인 경우(5-8번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던 '카톨릭'이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의 로지트분석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6번의 경우)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의 로지트분석에서는 태아가 딸인 경우, 직장생활 때문인 경우(8-9번)를 제외하고 모의 건강 때문인 경우,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경제사정 때문인 경우, 미혼여성이 임신한 경우,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 이혼을 고려중인 경우(1-7번까지의 경우)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즉, 낙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낙태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카톨릭 여성의 경우 낙태의 경험이 없을때는 무종교집단과 태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

가 낙태의 경험을 하는 경우 무종교집단은 낙태에 대해 자신을 합리화하며 낙태에 허용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반해 카톨릭 여성은 자신이 가진 종교의 교리가 가르치는대로 낙태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낙태에 대해 해서는 안된다는,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그대로 가지거나 또는, 낙태를 경험한 후에 잘못했다는 인식을 더 하게 되어 더욱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본다.

기혼여성이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6번)의 낙태에 대해서는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카톨릭 여성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는해서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 무종교집단에 비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카톨릭 교리상 다른 특수한 상황도 아닌 단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는 낙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아가 딸인 경우와 직장생활 때문에인 경우(8-9번)에 대해서는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로지트분석에서 카톨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딸이기 때문에 낙태하는 것, 또 직장생활 때문에 낙태하는 것은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카톨릭이나 무종교나 다 같이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가 무종교와 차이를 보인 것은 유일하게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의 로지트분석에서 기혼여성이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6번 경우)의 낙태이다. 즉, 기혼여성이 아이를 원치않아 낙태하는 경우에는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무종교에 비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개신교도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합리화하기위해 허용적으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더욱 깊어져 더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무종교집단과 차이를 보인 경우는 낙태의 경험이 없는 경우의 로지트분석에서는 미혼여성인 경우의 낙태에 대해 불교가 허용적 태도를 보였고,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의 로지트 분석에서는 태아가 기형아일 경우의 낙태에 대해 불교가 무종교집단에 비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불교를 신봉한다고 추측하면 미혼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로 여겨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아선호사상은 태아가 딸인 경우의 낙태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로지트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남아선호사상이 태아가 딸이기 때문에 하는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아들을 위해 여태아에 대한 낙태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오히려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3번)의 낙태에 대해 낙태 경험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모두에서 남아선호사상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계의 방향이 역방향이다. 즉, 남아선호사상이 높을수록 이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다. 남아선호사상이 높은 사람의 남성중심의 사고와 남성의 강압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와 상호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직업유무는 직장생활로 인한 낙태의 경우(9번)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유일하게 기혼여성이 아이를 원치않는 경우(6번의 경우)의 낙태에 대해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로지트분석에서 직업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들중에서는 직업이 있는 여성이 직업이 없는 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이 아이를 원하지 않아 낙태하는 경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혼여성이나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6번)에 '여성이 직장생활 때문에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9번)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기혼여성이나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6번의 경우)가 먼저 질문되었기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켜서 응답한 것은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겠다. '기혼여성이나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6번)에 대한 질문이 다른 질문과 배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구가 작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가족수입에 관한 변수는 전체 대상자의 로지트분석에서는 '중'인 경우가 '하'에 비해 직장생활 때문인 경우(9번의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과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을 나누어 분석하였을때,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로지트분석에서 직장생활 때문인 경우(9번의 경우)에는 '하'에 비해 '상'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미혼여성인 경우(5번의 경우)에는 '하'에 비해 '상'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바꾸어 말하면,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족수입이 '하'인 여성들이 '중'에 비해 직장생활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고, 가족수입이 '하'인 여성들이 '상'에 비해 미혼여성인 경우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가족수입이 '하'인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한 경우에는 경제사정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거나 또는 미혼여성으로 임신이 되었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낙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낙태에 대해 '중'이나 '상'의 여성보다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분석에서는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3번 경우)에 대해 수입이 '중'인 사람이 '하'인 사람에 비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의 낙태에 대해 수입이 '상'인 사람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중'인 사람들만이 '하'와 차이를 보여 허용적 태도를 나타내는지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연령에 관한 변수를 살펴보면 전체대상자의 로지트분석에서는 중간연령층이 젊은 여성에 비해 기혼 여성이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6번의 경우)에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즉, 기혼 여성이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해 중간연령층이 젊은층보다 더 허용적으로 나타났다.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나누어 분석하였을때 '기혼여성이나 더 이상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6번 질문)에 대해 낙태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중간연령층이 젊은층보다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2번 질문)에 대해서는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와 있는 사람의 경우 모두에서 중간연령층이 젊은층에 비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즉,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있을때의 낙태에 대해 중간연령층이 젊은층보다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강간을 당하여 임신한 경우'(3번 질문)에 대해서는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46세이상 연령층이 젊은층보다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즉, 강간을 당한 경우의 낙태에 대해서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보다 더 허용적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때 중간연령층이나 나이 많은 여성들이 젊은층의 여성들보다 낙태에 대해 더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이 이상적 태도를 견지하는데 반해 가정생활을 오래한 중간연령층이나 높은 연령층 여성들은 현실적 고려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관한 변수를 보면 전체대상자에 대한 로지트분석에서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중졸인 여성에 비해 기혼 여성이 더 이상의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6번)에 대해서만 허용적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 여성이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의 낙태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낙태경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나누어 로지트분석하였을 때에는 대졸이상의 여성들이 중졸에 비해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미혼여성인 경우(5번의 사유)에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사정 때문인 경우(4번의 사유)에 대해 더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고졸여성의 경우 중졸에 비해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미혼여성인 경우(5번), 아이를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6번) 등의 사유에 대해 더 허용적 태도를 보이며,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3번사유)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국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중졸여성에 비해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사정 때문인 경우(4번 질문)에

대해,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2번),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3번), 미혼 여성인 경우(5번)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바꾸어 말하면 중졸 여성이 국졸여성에 비해 위에 언급한 경우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인다.

교육수준에 대해 종합을 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모두 더 허용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2가지의 예외가 있다. 내졸이상인 낙태경험이 없는 경우 중졸에 비해 미혼여성인 경우(5번사유)에 허용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이며, 고졸여성이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 중졸에 비해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3번사유)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 예외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치관 교육이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위한 선택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

종합해볼 때, 전체 대상자를 로지트분석했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변수와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낙태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와 낙태를 경험한 경우로 나누어 로지트분석했을 때 여러 변수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VI. 결 론

우리나라에 소자녀관이 정착하면서 자녀수 조절의 한 방법으로 낙태가 묵인되어왔으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여태아낙태도 성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변수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논쟁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사유에 대해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분로지트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유무, 가족수입, 남아선호도, 낙태경험유무 등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종교 중 카톨릭은 무종교에 비해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이며,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남아선호사상이 높을수록 강간에 의한 임신을 낙태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 원하지 않는 아이의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가족수입이 '하'인 경우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연령이 중간층이나 높은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보다 낙태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더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낙태에 대해 허용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낙태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수입이 낮은 경우, 연령이 높은 경우 등이다. 낙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종교 중 카톨릭의 경우이다.

위의 결과를 현대사회의 변화의 방향에 비추어 살펴볼때 현대사회는 내체적으로 낙태를 저지하는 쪽보다는 낙태를 허용하는 상황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낙태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명확한 방향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여파로 큰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생명성서 풍조의 만연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성별에 따른 낙태에 의한 성비불균형문제이다. 성비불균형은 미래의 결혼 및 가족관계에 끼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그리스도와 의료 편집부, 낙태의 현황과 낙태반대운동연합의 활동, 그리스도와 의료 220호, 1995 봄, 25-30.
- 2) 김영환, 낙태죄 논쟁의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2(2), 1991 여름, 407-423.
- 3) 김인현, 한국의 출산성비 분석, 우리나라 인구 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4) 김은실,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여성의 삶, 형

- 사정책연구, 2(2), 1991 여름, 383-405.
- 5) 변화순, 국가정책과 여성-출산정책과 성비불균형 현상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9(3), 1991, 109-133.
 - 6) 배종대, 낙태죄, 고시연구 230권, 1993. 5, 91-105.
 - 7) 백경임, 불교적 관점에서 본 수태, 태태, 출산, 아동학회지 7(1), 1986, 49-65.
 - 8) 서정신, 한국에서의 성별 낙태에 대하여, 철학과 현실 20권, 1994. 3, 217-225.
 - 9) 이숙경,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낙태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0)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1) 이효재, 한국인의 아들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 한국문화연구논총 제 21집, 1973.
 - 12) 이홍탁, 남아선호사상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제20집, 1987.
 - 13) 임중권·송태민,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고찰, 인구보건논집 4, 인구보건연구원, 1984.
 - 14) 조순희, 서울시내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한 부인들의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15)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17) 한중식, 낙태논쟁-기독교 윤리적인 접근, 숭실대학교 논문집 제23집, 1993, 31-57.
 - 18) 한춘기, 성경과 낙태, 신학지남 239권, 1994. 3, 220-231.
 - 19) Baker, R.K, Epstein, L.K. and Forth, R.D., Matters of Life and Death, *American Politics Quarterly* 9(1), 1981, 89-102.
 - 20) Breslau, N., Abortion of Defective Fetuses: Attitudes of Mothers of Congenitally Impaire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4), 1987, 839-845.
 - 21) Cutler, S.J. et al., Aging and Conservatism: Cohort Changes in Attitudes about Legalized Abortion, *Journal of Gerontology* 35(1), 1980, 115-123.
 - 22) Ebaugh, H.R.F. and Haney, C.A., Shifts in Abortion Attitudes: 1972-1978,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1980, 491-499.
 - 23) Evers, M. and McGee, J., The Trend and Pattern in Attitudes towar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 1965-1977, *Social Indicators Research* 7(1-4), 1980, 251-267.
 - 24) Jones, E.F. and Westoff, C.F., Attitudes towar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 in 1970 and the Trend since 1965, Westoff, C.F. and Parke, R.JR (eds.), *Demographic and Social Aspects of Population Growth* volume 1, 1972, 571-578.
 - 25) Osborn, R.W. and Silkey, B., Husbands' Attitudes towards Abortion and Canadian Abortion Law,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12(1), 1980, 21-30.